

일터불자들이
걸어온 2004년

경기 침체... 불심 '活活'



정각회·농협·여객 불자회 등 '관' 키워 새 출발... 신행활동 다양화 돈보여

힘든 한해였다.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IMF때보다 악화된 시장경제는 수많은 중산층 가정을 무너뜨렸다. 직장인들 역시 곁잡을 수 없이 불어오는 조기퇴직과 감봉 등으로 고된 한파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일터불심만큼은 껍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올랐다. 국회 정각회, 전국농협불자회,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 등이 잇따라 창립하며 사회 곳곳의 일터불심을 일으켰고, 직장불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행방법들이 시도돼 직장불교의 미래를 밝게 했다.

올 한해 동안 직장·직능불자회가 얼마만큼 늘었고 신행패턴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없는지 살펴봤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터불심 꽃피움
지난해까지 직장불교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경불회) 양대 산맥이 이끌어 왔다면, 올해는 보다 다채로운 일터불심들이 직장불교에 힘을 더한 한해였다. 지난 11월 제17대 국회 정각회가 6년여간의 공백을 딛고 불교외호를 위해 재창립한데 이어, 농협불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 산재한 농협불자회를 중심으로 전국 조직을 가동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또한 전국 고속버스, 관광버스 운전기사 불자연합회인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와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가 창립해 '불심안전, 안전운행'을 기치로 창립해 하늘과 땅위의 포교활동에 나섰다.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황우석 교수를 중심으로 서울대 통합교수불자회가 창립돼 전공에 따른

불교연구 장려와 불자교수 발굴 등을 통해 불교연구역의 외연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고려원자력발전소 불자 직원 부인들의 모임인 고려반야부인회 등이 창립해 일터불심을 후방지원하고 있다.

공불련과 경불회 역시 올 한해 경기도 제2청사와 부여군청, 천안시청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장흥경찰서, 김포경찰서, 보령경찰서 등지에 불자회를 창립시키며 일터불심을 확산시켰다. 특히 인천해양경찰서 창립은 지금까지 경찰포교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해양경찰청에 불공(佛風)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맞춤형 신행으로 신심 재우장
기존 법회중심의 경전읽기와 염불수행으로 한정됐던 직장불자들의 신행패턴이 새벽 경기명상부터 사이버법회, 퇴근 후 경전공부,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훨씬 다양해졌다. 경불회 문영찬 총무를 비롯해 이재상 우리은행 불자회 홍보부장 등 많은 불자들이 이른 새벽 인근 사찰을 찾아 새벽예불과 함께 경기명상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춘천시청 도반회와 안양시정불자회는 퇴근 후 인근 불교대학을 찾아 불교공부에 열심이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와 한국은행 불자회 역시 점심시간마다 사내 법당에 모여 <법화경>과 <불교경전인문> <금강경> 등을 자체적으로 공부하며 일터 속 불교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행정보와 불교지식을 제공하고 얻는 직장불자들이 크게 증가한 점도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 하는 직장불자들이 사찰이나 불교대학을 찾다니며 신행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 올 한해 다양한 직장 불교사이트 등이 개설되며 불교기본 상식에

서부터 경전해설,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인터넷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40대 직장불자들 사이에서는 사이버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가상 성지순례를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놀랄지 않은 자연스러운 신행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도 작년부터 시작된 가족법회, 가족 동반 성지순례 등은 주5일제 근무제 정착과 더불어 직장불심을 가정으로 확산시키며, 회원 개개인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동료직원을 위한 선배들의 멘토링(대화형식의 상담)과 성경공부를 통해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들은 새로운 신행의 장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봉사·포교 등 활동영역 확산
더 이상 회원 개개인의 신행과 직장 내 불자회원들의 친목단체로 만족할 수 없다.

올 한해 일터불심은 포교와 봉사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와 포교교사불자회 등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청소년 동반 환경 등반대회'와 '청소년문화재교실'을 열며 차세대 불교주역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대한불자수회와 한국국방연구원·국방품질관리소 홍보위원회, 서울 구로구청 불자회 등은 군 포교 현장에서 신심을 불태웠다. 또한 여주교도소, 안동교도소 불자회 등 전국 교정인연합회는 업무의 특성을 살려 재소자 상담은 물론 불우한 재소자들에게 영지금을 전달해 가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도소 포교에 일익을 담당했다.

자리아타(自利利他) 정신을 강조하며 온정의 손길을 베푼 직장불자들도 많았다.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세

상'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이들. 공불련과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 등은 봉사활동의 날과 달을 제정해 독거어르신 및 장애아동들을 위한 노력봉사활동에 나섰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 성북구청불자회, 경복지방경찰청불자회 등 대부분의 불자회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노력봉사활동과 생활용품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재마을의료회와 경희의료원불자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등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자비이슬'을 펼쳤다.

올해 못 다룬 숙제는?
가장 큰 문제는 직장불자회의 내실화다. 현재 직장불자회는 조직 확대와 직장 내 불자발굴기에만 치중해 신행의 질적인 면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불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노령화된 상과, 재정빈곤, 지도부사 부재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불자회들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찰과 특정 스님에게만 의지하는 운명방식을 버리고 자체 법요집을 제작, 포교사를 법회에 활용하는 등 신행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주5일제 근무와 웰빙 등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신행여건이 다른 직장·직무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신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불교를 밀접히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합회 차원의 법회를 정제화하고 직종간 합동법회, 지역사회연합회와 연계한 사찰순례법회 등을 통해 '직장불자 인드라망' 구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불자회는요

원주경찰서 법우회

회원 개개인의 신행생활은 물론, 국민들의 편익과 안위를 위해 힘차게 뛰는 불자회. 안녕하세요, 원주경찰서 법우회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특별한 불교공부와 신행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신심을 돈독히 다지고 지역포교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고 활동하는 법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회방식 때문인지 법회가 있는 날이면, 특별한 공지가 없어도 삼삼오오 법당을 향하는 회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우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자이지만 미가입한 동료들을 이끌며, 신행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시청불자회와 교도소불심회 등 지역 직장직능단체들과 연합법회를 보며 지



원주경찰서 법우회원들이 12월 5일 영일 법총사와 단양 구인사로 동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정기법회·성지순례 50여 회원 신심결집

시청·교도소 등 지역 불자회와 연합 활동

우리 불자회는 지난 2001년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의 도움을 받아 14명의 회원으로 공식출발했습니다. 한때 경찰서 내 경승실 마련과 불상봉안을 두고 개신교 신자들과 대치할 뻔하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50여명의 회원이 '신행위주의 법우회'라는 창립기지를 되 세우며 매일 첫째, 셋째주 금요일 정기법회와 분기별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회시간에는 지도스님인 현각 스님과 경해 스님(성문사 주지)의 지도 하에 불교교리와 예절 등을 공부하며 불법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스님이 부재할 시에는 법우회 내 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회원들과 함께 불교교리와 개개인의 신행담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행생활과 불자로서의 역할 등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수동적인 법회보다는 회원들

역불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내 공공기관 중 제일 큰 법당을 가졌다 자랑해도 될 만큼, 경찰서 내 법당이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어 법당이 없어 법회를 못 보거나 신행활동에 불편을 겪는 직장불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민연합회 행사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 행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려 노력합니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을 통해 알려나가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이 회원 몇몇이 소책자 마을 등을 찾아 땀을 흘리고 부처님 곁에 머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직장불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연구 회장(생활안전과장)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0주년 독자 사은 대행사



이번 주,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 법회 이벤트



1. 가고 싶은 사찰은 네비게이션을 보며 빠르고 정확히 찾아갈 것!
2. 수백 권의 경전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바로바로 예습할 것!
3. 큰스님의 중요 법문은 음성녹음과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다시 볼 것!
4. 큰스님과 친견을 원할 때에는 화상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것!

단행번의 기회!

평생가속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i-Bud를 드립니다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벡 무료제공, 기말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로 일시납, 12개월 의무사용

MP3·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1 '아이벡'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HP rw6100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2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에게는 초기수납금 55,000원에 24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HP rw6100 스마트폰의 혜택과 다양한 주변기기를 드립니다. (월 평균 할부금 24,291원)

구입문의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벡(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아이벡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t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